

익산 마을전자상거래 신성장동력

매출 10억원 눈앞... 1분기 만에 올해 목표 뛰어넘어 익산시, 추가 예산편성·판로확대 주력 등 농가지원

익산시가 도입한 마을전자상거래가 1분기 만에 올 한 해 매출 목표를 뛰어넘으며 지역 농가들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유통 개선이라는 장점 속에 농가수익 창출의 안정적인 획기적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농가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사업예산 추가 편성하는 등 농가 지원

을 확대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도내 최초로 도입된 마을전자상거래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3개월 동안 3만18천건, 9억7,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1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초 계획했던 매출 목표가 10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1분기 만에 목표 달성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

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총 3만7,000여건, 5억 7,100만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 달성을 위해 익산시는 올해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3억9,000만원이 투입됐으며 IT전문가와 중간지원조직이 현장중심으로 농가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마을전자상거래는 농산물 품목을 네이버와 옥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IT 전문가와 보조사업자가 지역 소평물에 상품 등록과 오픈마켓 판매를 대행해주고 있다.



익산시가 도입한 마을전자상거래가 1분기 만에 올 한 해 매출 목표를 뛰어넘으며 지역 농가들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여 농가들은 이를 활용해 농·특산품은 물론 농촌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상품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것으로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 결과 마을전자상거래는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245곳의 지역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약 30여 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익산시는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품질관리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판로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전문기관에 의뢰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상품정보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농산물 품질 강화를 위해 신선도와 포장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1인 유튜브 방송실도 북부청사에 구축했다.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농가가 유튜브와 SNS로 소비자를 직접 만나 농산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출하방식을 기존 개별농가 중심에서 마을단위 공동출하로 변경해 효율성을 높였으며 전자상거래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익산시는 택배박스 구입비용의 50%와 판매간가 7천원 이상의 판매된 상품에 한해 배송비를 건당 2,500원씩 최대 400건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계약택배 제도를 도입해 택배 무게와 거리, 수량에 상관없이 가격을 정액화해 농가들의 불투명 절감에 보탬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익산시는 추경에 7억원을 추가 편성해 올해 판매목표를 4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토대로 소농과 영세, 고령농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마을전자상거래가 1분기만에 올 한해 목표인 10억원을 달성하며 농촌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농가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홍남동 봉사단 사랑의 밑반찬 서비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사랑을 실천한 단체가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홍남동 봉사단(단장 최우진)은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4월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홍남동봉사단은 지역사회회보장협의체에서 특화사업으로 결정된 밑반찬지원사업을 저소득층 30가구에 매월 직접 만들어서 배달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들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직접 반찬을 만들지 못하지만 이달에는 관내 반찬가게를 통해 몇가지 반찬을 구입해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반찬을 받으신 어르신께서 "감염병으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골고루 맛있는 반찬을 직접 배달해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우진 홍남동장은 "당분간은 답답하시더라도 외출을 삼가고, 손씻기 등 청결을 유지하셔서 아프시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헬스케어사업 추진

군산시가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취약한 농업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1년도까지이며,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 혈압계와 발안마기를 보급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올해 사업비는 10억800만원으로, 이는 약 161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개소당 280여만원 상당의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놀이꾸러미 지원

익산시가 직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영유아가정을 대상으로 '우리아이놀이꾸러미'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우리아이놀이꾸러미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난 3월말부터 4월10일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10일간 총 200가정이 참여했으며, 사회적거리두기로 잠시간 가정양육에 지친 영유아 가정에 배부하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중 북쪽이놀이, 화정지놀이, 호일놀이 재구성하여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영유아가정들에 격려기간 동안 총 2회씩 비대면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배수지 청소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청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저장해 각 가정이나 공장 등 수용가로 직접 공급하는 시설이다. 익산시가 관리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배수지는 신흥, 금강, 팔봉, 금마, 왕궁, 삼기산단 등 총 6곳이며, 청소는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배수지 청소는 수도법에 따라 배수 전문업체에 용역을 통해 매년 반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농작업안전사고 제로에 도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등 추진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확대로 농작업 재해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센터는 농업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사업, △농업인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사업등을 알차게 구성했다. 남산 상하남 딸기 작목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딸기 재배 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보조구를 선정하고 보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보급된 안전예초기는 안전커버가 부착되어 작업 중 비례하는 돌 등의 파편을 막아 상해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과 종아리를 보호하는 예초기 보호구 세트를 함께 보급하여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시범 사업은 농작업 유해요인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마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마을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망성면 화정마을은 수박을 주작물로 재배하는 마을로 쪼그려 앉아 일하는 작업이 빈번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센터는 이를 위해 허리보호대와 농작업의자를 보급하고, 농기구정리대와

농약보관함을 비치했다. 농업인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사업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관리, 농기계사고예방요령,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 안전지시등, 농작업용 랜턴 등의 안전보호구를 시연·보급한다. 더불어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실습하며 재해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이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임차인 모집 '성황'

3.6:1의 높은 경쟁률 기록

군산시가 지난 8일까지 실시한 경영실습 스마트팜 임차인 모집결과 3.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접수를 마감하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시설운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임차인 모집결과, 5명 모집에 18명이 신청하여 3.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30세로 남자 15명(83%), 여자 3명(17%)이고 지역 출신은 14명(78%), 타 시도출신은 4명(22%)이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1차 서류심사로 지원동기, 영농계획을 평가하고 2차 면접심사로 영농정착 가능성, 창업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정된 임차농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추진해 영농정착에 필요한 농업기술, 농업경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마트팜 전문교육은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과 연계하여 이론과 현장실습으로 진행되며 이후, 경영실습 스마트팜에서 자가 경영형 교육이 이뤄진다. 김창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산농업을 이끌어갈 원예전문가를 양성해 미래 우주 농업에서 벗어나 스마트팜 시설원에 농업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을 농촌에 유입시킴으로써 농촌지역 활력증진 및 군산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6월, 대이면 보덕리 일원 국방부 부지를 매입해 규모화·집단지원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경영실습 공간을 마련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